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2013, Vol. 18, No. 2, 257-277

중학생이 지각한 부와 모의 양육행동이 인터넷 중독 성향에 미치는 영향: 우울과 불안의 매개효과*

김 소 연
부산대학교 교육학과

이 동 훈†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이 지각한 부와 모의 양육행동과 인터넷 중독 성향 간의 관계에서 우울과 불안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대상은 P광역시에 소재한 18개의 중학교 1, 2, 3학년 총 1092명이었으며, 부모 양육행동, 우울, 불안, 인터넷 중독 척도를 사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부와 모의 양육행동, 우울, 불안, 인터넷 중독 성향 간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울과 불안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구조방정식을 사용하여 매개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 양육행동의 부 돌봄과 인터넷 중독 성향과의 관계에서는 하위요인에서 부적 상관을 보였고, 부 통제와 인터넷 중독 성향과의 관계에서는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모 양육행동의 모 돌봄과 인터넷 중독 성향과의 관계, 모 통제와 인터넷 중독 성향과의 관계에서는 하위요인에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부 양육행동과 우울 및 불안의 관계, 모 양육행동과 우울 및 불안의 관계에서도 부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우울과 불안 모두 인터넷 중독 성향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둘째, 부의 양육행동과 모의 양육행동은 인터넷 중독 성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우울과 불안을 매개로 하여 인터넷 중독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모의 양육행동이 부의 양육행동보다 우울과 불안을 매개로 인터넷 중독 성향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논의 및 시사점이 제시되었다.

주요어 : 부와 모의 양육행동, 우울, 불안, 인터넷 중독 성향

---

* 이 논문은 김소연(2013)의 석사학위 논문을 일부 수정, 요약한 것임.

† 교신저자 : 이동훈,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호암관 1103호
Tel : 02-760-0558, E-mail : dhlawrence05@gmail.com

www.kci.go.kr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탐색하며 유익한 정보를 얻는다. 인터넷은 이제 현대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도구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은 학습, 여가, 오락, 타인과 소통하는 수단,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매체로 유익하게 활용되고 있다(김기숙, 김경희, 2009). 그러나 이러한 인터넷의 순기능적 측면과 달리 인터넷의 역기능적 측면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지나친 인터넷의 사용은 만성피로, 체력저하, 수면부족, 식욕부진 등의 신체적인 문제를 경험하게 한다(Murali & George, 2007). 또한, 일상적인 대인관계를 소원하게 하여 심하면 관계의 단절을 야기시키고 우울, 불안, 무기력감과 같은 부정적 정서로 이어져 심리적 부적응을 일으키기도 한다(김기숙, 김경희, 2009; 김수정, 박원모, 박상복, 2007).

인터넷 이용률에 관한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인터넷 이용률은 2000년 44.7%에서 2010년 77.8%로 총 33.1% 증가하였고, 인터넷 이용자의 수도 약 2배 증가하였다. 그 중에서 10대들의 인터넷 이용률은 2000년에 51.8%에서 2010년에 99.9%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10). 10대들의 인터넷 사용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인터넷 중독 위험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최근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한국정보화진흥원, 2010)에 따르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률(12.4%)은 성인의 인터넷 중독률(5.8%)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 인터넷 중독의 고위험군의 비율도 전년도에 비해 0.5% 증가하여 그 심각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행정안전부 등, 2011).

인터넷 중독이라는 말은 Goldberg(1995)에 의해 처음 제기된 용어로, 인터넷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인터넷 사용에 대한 내성이 생기고, 인터넷 사용을 중단했을 때 금단 현상이 나타나며,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일상생활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Young(1996)은 과도한 인터넷 사용이 인해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중독과 마찬가지로 지각장애, 주의력장애, 사고장애, 판단력장애, 정신운동성 행동장애 및 대인관계 장애를 유발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인터넷 중독은 자기조절 능력 상실, 감정조절 능력 감소, 대인기피증, 강박감, 편집증 등의 증상을 보이기 쉽고 원조교제, 모방 성범죄, 폭력, 살인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청소년보호위원회, 2000).

인터넷 중독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나면서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요인이 밝혀지고 있다. 인터넷 중독은 자기통제력(권희경, 권정혜, 2001; 이소영, 권정혜, 2001), 자아존중감(안순영 등, 2009), 충동성(박지은, 최연희, 2011), 우울, 불안(이석범 등, 2001; 이수진, 2008)과 같은 개인 심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부모의 양육행동(방희정, 조아미, 2003; 장재홍, 2004),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소선숙, 명재신, 김청송, 2011), 교사와 친구의 지지(이명수 등, 2001)와 같은 사회 환경적 측면에서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연구 흐름에 따라 최근에는 개인, 환경 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다체계적인 연구(김교정, 서상현, 2006; 이수진, 2008)가 이루어지고 있다.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환경관련 변인들 중에서 부모의 양육행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김경신, 김진희, 2003; 장재홍, 2004). 청소년은 성장기의 대부분을 부모의 영향 하에서 보내게 되면서 부모와 상호유대관계를 맺게 되고, 부모는 자녀의

www.kci.go.kr

정서·행동 발달의 모태가 된다(김애경, 2001). 부모는 강력한 모델로서 자녀의 성격형성과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회가 요구하는 행동규범, 가치, 도덕성을 획득하는 사회화 과정과 자녀의 부적응을 경감, 완충시키는 핵심역할을 한다(김애경, 2002). 이러한 부모의 양육행동은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부모의 양육행동 중 과보호적 양육태도는 과도한 인터넷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전성일 등, 2000), 부모의 양육태도가 독재적이고 방임적이며 거부-통제적일 경우에는 자녀의 인터넷 중독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장재홍, 2004; 전요섭, 김수경, 박은정, 2008). 부모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부모가 자녀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을수록 자녀가 인터넷을 과도하게 사용한 반면(김교헌, 2002; 장재홍, 2004; Kwon, Chung, & Lee, 2011), 부모가 자녀에게 관심과 애정이 많고 긍정적, 개방적일수록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성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수진, 홍세희, 박중규, 2005; 최혜진, 최연실, 안연주; 2011).

부와 모의 양육행동을 나누어 살펴본 선행연구에 의하면, 여자청소년의 경우에는 부모 모두와 의사소통이 잘 안될 때, 남자청소년의 경우에는 어머니와 의사소통이 잘 안될 때 인터넷 중독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소선숙, 명재신, 김청송, 2011). 전요섭 등(2008)은 남자청소년이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통제적, 적대적으로 지각할수록 인터넷 중독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부모의 무관심, 무시와 같은 방임적 양육태도와 적대감, 공격성과 같은 거부적인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기본적 욕구인 사랑과 인정, 관계 욕구를 채우지 못하게 되고, 부모로부터 충분한 관심과 지원을 받지 못한 청소년들이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회피하고자 인터넷에 몰입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김기숙, 김경희, 2009; Davis, 2001; Kwon, Chung, & Lee, 2011).

한편, 부모 양육행동에 대해 다루어 살펴본 연구에서 부모의 과보호가 미국 청소년에게는 적대감, 거부와 관련이 있으나(Rohner & Rohner, 1978), 한국 청소년에게는 부모가 자녀를 단지 감시하고 통제하며 자녀의 독립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부정적 인식보다는 자녀의 일상생활에 대한 부모의 이해와 관심 및 표현으로 여기는 긍정적 인식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었다(Rohner & Pettengil, 1985). 이는 한국사회에서의 부모의 양육행동은 문화적인 특성상 서구사회와 다른 패턴을 보인다고 가정할 수 있다. 즉, 과잉개입과 과보호가 보편화되어 있는 한국사회에서는 부모의 통제적, 과보호가 한국 청소년에게 반드시 부정적으로 지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한국사회에서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통제적, 과보호적 양육행동은 서구사회와는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관련요인에 대해 체계적인 규명이 필요하다.

이처럼 선행연구들은 부모의 양육행동과 인터넷 중독 성향 간 높은 관련성을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의 양육행동과 인터넷 중독 성향 간의 관계를 좀 더 명확히 밝히는 것은 인터넷 중독 예방 및 상담 개입 방안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다.

부모의 양육행동은 청소년의 우울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우울은 슬픈 감정이나 침울한 기분을 나타내는 정서로, 부정적 자기개념과 의욕상실, 활동 수준 저하, 주의집중 곤란 등의 어려움을 수반

www.kci.go.kr

한다(Davison & Neale, 1982). 국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청소년의 지각 및 정서가 긍정적일 때, 청소년의 우울 수준은 낮았고(Patten et al., 2001; Phares & Renk, 1998), 자녀의 생활을 추적하고 감시하며 침범하는 부모의 과도한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우울을 유발시키는 경향이 있었다(Sato et al., 1998). 국내 연구에서도 부모가 과보호하는 청소년은 우울과 같은 심리적 부적응을 경험하게 되고(문경주, 오경자, 2002), 자녀의 사생활을 침범하는 부모의 침입적 행동은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김보경, 민병배, 2006). 즉,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지나치게 간섭하는 부모의 과도한 심리적 통제는 부모와 자녀의 분리개별화를 저해시킬 수 있다. 통제적 양육으로 자기계발의 기회가 제한된 청소년은 자신감이 떨어지고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우울할 수 있다(Constanzo & Woody, 1985). 부와 모의 양육행동을 나누어 살펴본 선행연구에 의하면 어머니의 폐쇄적 의사소통은 청소년의 높은 우울을 경험하게 하고(김애경, 2001), 김동식(2004) 역시 청소년의 우울성향은 부보다 모의 과보호적 성향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우울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한편 우울은 인터넷 중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다(오원옥, 2007; 이수진, 2008; Young, 1996). 인터넷 중독자는 일반인에 비해 우울감을 더 느낀다고 하였고(Cao & Su, 2007; McGlinchey & Dobson, 2003), Young(1996)도 인터넷 중독 성향에 빠진 사람들의 54%가 우울증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특히 청소년은 심리적으로 완전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인에 비해 인터넷에 중독될 가능성이 높다(권구영, 이혜자, 2002; 오원옥, 2004). 청소년 중에서도 우울하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우울한 청소년이 인터넷 중독 성향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전영자, 서문영, 2006;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3; Gunn, 1998).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우울 수준이 높을 때, 인터넷 중독 성향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우울은 부모의 양육행동의 결과로서 나타나기도 하고, 동시에 인터넷 중독 성향을 일으키는 원인으로서 작용하기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부모의 양육행동이 인터넷 중독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우울이라는 정서적 특성이 두 변인의 매개 역할을 할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의 양육행동과 인터넷 중독 성향 간의 관계에서 우울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부모의 양육행동은 청소년의 불안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문경주, 오경자, 2002; 이수진, 2008). Bögels과 Van Melick(2004)는 불안과 관련된 부모의 양육행동을 자율성-과보호, 수용과 지지-비난과 거부 두 차원으로 분류하였고, 이 중 과보호차원이 자녀의 불안 유지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부모의 양육행동을 거부적으로 지각한 청소년일수록 불안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Stark, Humphrey, Crook, & Lewis, 1990), 부모에게서 심리적으로 지나친 간섭과 감시, 제재를 받은 청소년은 불안을 더 경험하였다(Barber, Olsen, & Shagle, 1994; Sato et al., 1998). 국내의 다양한 연구들에서도 불안을 보이는 청소년은 정상집단보다 부모의 학대, 과잉보호, 과잉기대, 방임 및 비일관성이 높고 온정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손석한 등, 2001), 특히 과잉보호 요인이 청소년의 불안에 영향을 미쳤다(문경주, 오경

www.kci.go.kr

자, 2002). 부모의 양육행동을 나누어 살펴본 연구에서는 부보다 모의 적은 관심, 낮은 돌봄적 양육행동은 청소년의 높은 우울과 상관이 있다고 보고하였고(Parker, 1979b), 부보다 모의 낮은 감독, 방임, 학대가 청소년의 높은 우울과 관련이 있었다(최지애 등, 2007).

한편 불안은 인터넷 중독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Young(1996)은 인터넷 중독에 빠진 사람들의 31%가 불안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하였고, 불안 수준이 높을 때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은 증가하였다(Shepherd & Edelmann, 2005). 국내의 연구들도 불안을 경험하는 청소년은 인터넷에 중독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였고(김수정, 박원모, 박상복, 2007; 이승대, 김선미, 2008), 불안이 높은 경우 인터넷을 과다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김준수 등, 2004; 이석범 등, 2001). 불안과 같은 부정적 정서가 생기면 인간은 생리적 균형을 회복시키고자 하는데(Greenberg & Paivio, 1997), 청소년기에는 균형 회복을 위한 건강한 기술이나 능력이 완전히 발달되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은 현실에서 느끼는 불안을 감소시키고자 인터넷 사용을 통해 즐거움을 얻는 보상경험을 하면서 인터넷 중독에 빠지게 된다(장재홍 등, 2002; Griffiths, 1996).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부모의 양육행동은 자녀의 불안에 영향을 미쳐 인터넷이 이러한 불안에 대한 보상적 활동이 될 수 있음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불안은 잘못된 부모 양육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이면서, 동시에 인터넷 중독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의 양육행동과 인터넷 중독 성향의 관계에서 불안이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지 그 경로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부모의 양육행동, 청소년의 우울, 불안과 인터넷 중독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에 비추어볼 때, 부모의 양육행동은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우울 및 불안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인터넷 중독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연구하기 위해 우울, 불안이라는 심리적 특성이 부모의 양육행동과 인터넷 중독 성향의 관계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부모의 양육행동을 나누어 살펴본 연구에서는 부보다 모가 덜 온정적이고 거부적이라고 지각할수록, 자녀가 인터넷 중독 성향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전춘애 등, 2008; 이혜린 등, 2009). 현재까지 부모의 양육행동 및 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연구는 많은 편이지만, 부의 양육행동에 대한 연구는 극히 찾아보기 어렵다. 부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은 자녀의 생활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며, 아동, 청소년, 성인에까지 계속 지속되며(Manlove & Vernon-Feagans, 2002; McBride, Schoppe, & Rane, 2002), 청소년이 부의 양육행동에 대해 적대감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인터넷 중독 성향 수준이 높게 나타난 점을 고려했을 때, 부의 양육행동 역시 자녀의 인터넷 중독 성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전요섭 등, 2008), 부와 모의 양육행동을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부모 각각의 양육행동과 인터넷 중독 성향 간 관계를 살펴보고 이들의 영향력 크기를 비교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현재까지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성향과 관련하여 다양한

www.kci.go.kr

요인들이 논의되어 왔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은 인터넷 중독의 실태나 관련 변인들과의 단편적인 관계를 살펴보았다. 더욱이 개인과 환경의 요인들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성향에 어떠한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경로를 규명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서는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성향에 이르는 환경적 요인인 부모의 양육행동과 우울, 불안이라는 개인적 요인의 영향력을 함께 확인하고자 한다. 우울과 불안이 부모의 양육행동과 인터넷 중독 성향 간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것이 밝혀지면 향후 인터넷 중독 성향의 예방 및 중재를 목적으로 하는 효과적인 개입에 도움이 될 것이다.

연구방법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본 연구는 2008년 10월부터 2012년 2월에 걸쳐 P광역시의 남·여 중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1214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그 중 1167부를 회수하였다. 회수한 자료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 65부를 제외하고, 총 1092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성별의 분포는 남학생 552명(50.5%), 여학생 540명(49.5%)이었고, 연령의 분포는 1학년 259명(42%), 2학년 437명(40%), 3학년 196명(18%)이었다.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이 지각한 부와 모의 양육행동이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우울과 불안의 매개역할을 검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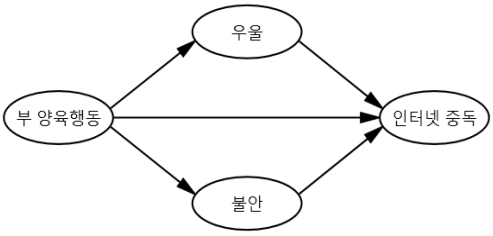

그림 1-1. 연구모형(부분매개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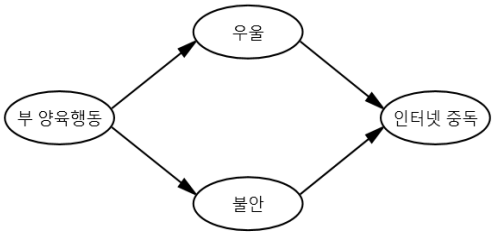

그림 1-2. 경쟁모형(완전매개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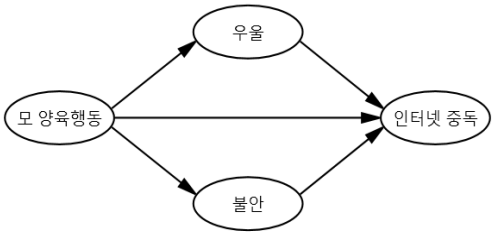

그림 2-2. 연구모형(부분매개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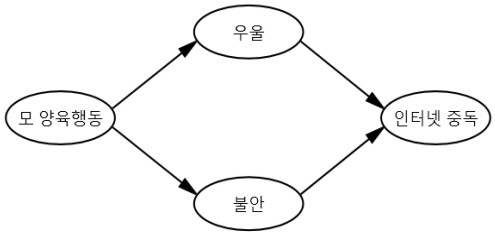

그림 2-2. 경쟁모형(완전매개 모형)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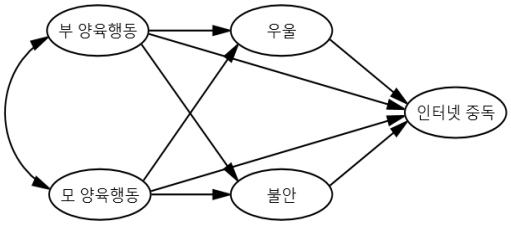

그림 3-1. 연구모형(부분매개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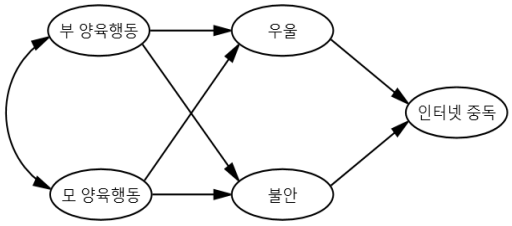

그림 3-2. 경쟁모형(완전매개 모형)

측정도구

부·모 양육행동

부와 모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Parker 등(1979)이 제작한 Parent Bonding Instrument(PBI)를 송지영(1992)이 한국 실정에 맞게 표준화한 부모의 양육 행동을 사용하였다. 문항의 구성은 부와 모 각각에 대한 돌봄(애정)차원을 측정하는 12개 문항과 통제(과보호)차원을 측정하는 13개 문항으로 되어있고 총 25문항이다. 돌봄차원은 따뜻함과 수용에서 무관심과 거부로 이어지는 하나의 축을 구성하며, 통제차원은 과보호와 과잉개입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으로 이어지는 또 하나의 다른 축을 구성한다. 총점은 부와 모 각각 25~100점 사이에 분포한다. 각 문항 형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의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송지영(1992)의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α)는 부 돌봄 .90, 부 통제 .88, 모 돌봄 .81, 모 통제 .87이었고, 본 연구의 신뢰도는 부 양육 .82, 모 양육 .69이었다.

우울

청소년의 우울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Kovacs(1981)의 소아 우울 척도(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CDI)를 조수철과 이영식(1990)이 한국 실정에 맞게 표준화한 한국형 소아 우울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우울정서, 행동장애, 흥미상실, 자기비하, 생리적 증상의 5개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총 27문항이다. 각 문항 형식은 0점에서 2점까지의 3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총점은 0점~54점 사이에 분포하며, 총점의 T점수가 65점 이상일 때 잠재적인 임상적 우울을 지녔다고 본다. 조수철과 이영식(1990)의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α)는 .88이었고, 본 연구의 신뢰도는 .82이었다.

불안

청소년의 불안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Reynolds와 Richmond(1978)가 제작한 Revised Child Manifest Anxiety Scale(RCMAS)을 최진숙과 조수철(1990)이 번안하고 표준화한 소아·청소년 불안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4개의 불안요인(걱정·두려움 요인, 생리적 요인, 분노·충동 요인, 소외·불행)과 1개의 허구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37개 문항이다. 각 문항 형식은 "예"(1점)나 "아니오"(0점)의 2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최진숙과 조수철(1990)의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α)는 .81이었고, 본 연구의 신뢰도는 .72이었다.

www.kci.go.kr

인터넷 중독 성향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성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청택 등(2002)이 개발한 한국형 인터넷 중독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총 40문항으로 일상생활장애, 현실구분장애, 긍정적 기대, 금단, 가상적 대인관계 지향성, 일탈행동, 내성의 7개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 형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의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김청택 등(2002)의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α)는 .96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87이었다.

자료분석

자료는 SPSS 19.0과 AMOS 18.0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SPSS 19.0을 사용하여 측정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AMOS 18.0을 사용하여 측정모형 검증을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과 구조방정식을 통한 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셋째,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결 과

측정 변인들의 기술 통계

부와 모의 양육행동, 우울, 불안, 인터넷 중독 성향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계수는 표 1과 같다. 첫째, 부 양육행동의 부 통제와 인터넷 중독 성향은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으나, 부 돌봄과 인터넷 중독 성향과의 관계에서는 일부 하위요인에서 낮은 부적 상관을 보였다(일상생활장애 r=-.14, p<.01, 가상적 대인관계 지향 r=-.10, p<.01, 일탈행동 r=-.08, p<.05). 모 양육행동과 인터넷 중독 성향 간의 관계에서 모 돌봄과 인터넷 중독 성향은 부적 상관을 보였고(일상생활장애 r=-.17, p<.01, 금단 r=-.13, p<.01, 가상적 대인관계지향 r=-.13, p<.01, 일탈행동 r=-.12, p<.01, 내성 r=-.11, p<.01), 모 통제와 인터넷 중독 성향은 일부 하위요인에서 낮은 부적 상관을 보였다(일상생활장애 r=-.10, p<.05, 일탈행동 r=-.08, p<.05, 내성 r=-.10, p<.01). 둘째, 부 돌봄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는 모두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였고(행동장애 r=-.27, p<.01, 흥미상실 r=-.28, p<.01, 우울정서 r=-.25, p<.01, 생리적 증상 r=-.25, p<.01, 자기비하 r=-.24, p<.01), 부 통제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도 모두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였다(흥미상실 r=-.22, p<.01, 행동장애 r=-.20, p<.01, 우울정서 r=-.18, p<.01, 생리적증상 r=-.17, p<.01, 자기비하 r=-.16, p<.01). 부 돌봄과 불안 간의 관계에서는 모두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고(소외불행 r=-.26, p<.01, 걱정두려움 r=-.22, p<.01, 신체생리적 r=-.22, p<.01, 분노충동 r=-.07, p<.05), 부 통제와 불안 간의 관계에서도 대부분의 하위요인에서 낮은 수준의 부적 상관을 보였다(소외불행 r=-.20, p<.01, 걱정두려움 r=-.19, p<.05, 신체생리적 r=-.14, p<.01). 셋째, 모 돌봄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는 모두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였고(흥미상실 r=-.30, p<.01, 자기비하 r=-.28, p<.01, 우울정서 r=-.26, p<.01, 행동장애 r=-.23, p<.01, 생리적 증상 r=-.16, p<.01), 모 통제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도 모두 낮은 수준의 부적 상관을 보였다(행동장애 r=-.17, p<.01, 흥미상실 r=-.16, p<.05, 자기비하 r=-.14, p<.01, 우울정서

www.kci.go.kr

표 1. 부모 양육행동, 우울, 불안, 인터넷 중독 간의 상관관계 (N=1092)

요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 부 돌봄	-	.72**	.49**	.32**	-.25**	-.27**	-.28**	-.24**	-.25**	-.22**	-.07*	-.26**	-.21**	-.14**	-.04	-.05	-.09	-.10**	-.08*	-.07
2 부 통제		-	.43**	.35**	-.18**	-.20**	-.22**	-.16**	-.17**	-.19*	-.04	-.20**	-.14**	-.07	.00	-.02	-.04	-.07	-.06	-.04
부 양육행동																				
3 모 돌봄			-	.57*	-.26**	-.25**	-.30**	-.28**	-.16**	-.21**	-.08	-.25**	-.15**	-.17**	-.07	-.06	-.13**	-.13**	-.12**	-.11**
4 모 통제				-	-.13**	-.17**	-.16*	-.14**	-.09**	-.12**	-.03	-.11**	-.05	-.10*	-.06	-.03	-.06	-.06	-.08*	-.10*
모 양육행동																				
5 우울정서					-	.55**	.53**	.53**	.40**	.50**	.38**	.53**	.40**	.22**	.17**	.11**	.21**	.18**	.15**	.16**
6 행동장애						-	.58**	.54**	.38**	.50**	.38**	.47**	.40**	.26**	.12**	.18**	.24**	.18**	.18**	.18**
7 흥미상실							-	.57**	.40*	.46**	.25**	.32**	.34**	.27**	.14**	.22**	.23**	.18**	.16**	.22**
8 자기비하								-	.40**	.40**	.24**	.48**	.42**	.24**	.19**	.16**	.21**	.20**	.20**	.19**
9 생리적증상									-	.47**	.24**	.38**	.47**	.13**	.11**	.07	.16**	.10**	.11**	.12**
우울																				
10 객관주관용										-	.49**	.61**	.51**	.26**	.20**	.18**	.27**	.19**	.23**	.23**
11 분노충동											-	.31**	.29**	.13**	.11**	.10**	.13**	.09*	.05	.09*
12 소외불행												-	.20**	.23**	.20**	.16**	.21**	.24**	.18**	.21**
13 신체생리적													-	.18**	.17**	.15**	.19**	.18**	.15**	.16**
불안																				
14 일상생활장애														-	.45**	.49**	.55**	.44**	.55**	.62**
15 현실구분장애															-	.38**	.48**	.38**	.48**	.42**
16 긍정적기대																-	.65**	.55**	.44**	.54**
17 불안																	-	.50**	.58**	.61**
18 가상적 대인관계지향																		-	.47**	.50**
19 일탈행동																			-	.62**
20 내성																				-
인터넷중독																				
M	34.10	61.57	36.44	36.03	2.02	3.70	3.83	1.67	1.83	4.94	2.53	1.11	2.41	14.43	3.33	9.56	8.79	7.70	8.33	7.99
SD	6.78	4.70	6.02	3.92	1.68	1.82	2.26	1.35	1.50	3.09	1.31	1.25	1.64	3.36	0.88	2.88	2.44	2.09	2.00	2.40

*p<.05; **p<.01; ***p<.001

www.kci.go.kr

r=-.13, p<.01, 생리적증상 *r*=-.09, p<.01). 모 돌봄과 불안 간의 관계에서는 대부분의 하위요인에서 낮은 수준의 부적상관을 보였고(소외불행 *r*=-.25, p<.01, 걱정두려움 *r*=-.21, p<.01, 신체생리적 *r*=-.13, p<.01), 모 통제와 불안 간의 관계에서도 일부 하위요인에서 낮은 수준의 부적 상관을 보였다(걱정두려움 *r*=-.12, p<.01, 소외불행 *r*=-.11, p<.01). 넷째, 우울과 인터넷 중독 성향의 관계에서는 모든 하위요인에서 정적 상관을 보였고(*r*=.10, p<.01, *r*=.27, p<.01), 불안과 인터넷 중독 성향의 관계에서도 역시 모든 하위요인에서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다(*r*=.09, p<.05, *r*=.27, p<.01).

측정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는 부와 모의 양육행동, 우울, 불안, 인터넷 중독 성향에 대한 측정의 적절성을 살펴보기 위해, 측정모형을 분석하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적합도 지수 중 χ^2값은 707.27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χ^2 검증결과는 측정모형이 적합하지 않았다. 그러나 χ^2 검증은 영가설의 내용이 너무 엄격하여 모형이 조금만 틀려도 쉽게 기각되며 동일한 모형이라도 표본크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모형의 간명성을 반영하고, 표본크기에 민감하지 않으며, 해석기준이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되는 CFI, TLI, RMSEA의 적합도 지수를 사용하여 검증결과를 보완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CFI와 TLI는 .90이상이면 적합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고, RMSEA는 .08이하일 때 괜찮은 적합도, .05이하일 때 좋은 적합도로 해석한다(홍세희, 2000). 본 연구의 측정모형 적합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적합도로 나타났다(CFI = .94, TLI = .93, RMSEA = .06(95% 신뢰구간 = .05 - .06).

구조모형 검증

측정모형이 적합하게 나타나 우울과 불안이 매개하는 매개모형을 검증하고자 구조방정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모두 CFI와 TLI가 좋은 적합도를 보였고, RMSEA에서도 보통의 적합도로 나타났다(표 2 참조).

다음 단계에서는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중 어떤 모형이 더 적절한 모형인가를 밝히기 위하여 모형검증을 실시하였다. 부 양육행동에서 두 모형의 χ^2차이값은 .0299이며 자유도의 차이값은 1이다. 자유도 차이인 1에 대한 χ^2 차이의 임계값인 3.84보다 크면 양방 유의수준에서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χ^2검증결과가 유의하면 복잡한 모형을, 유의미하지 않으면 간명한 모형을 선택하므로(홍세희, 2000), 본 연구에서는 경쟁모형이 선택되었다. 즉, 부 양육행동이 우울과 불안을 매개하여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 양육행동에서 두 모형의 χ^2 차이값은 1.963이며 자유도의 차이값은 1이다. 자유도 차이인 1에 대한 χ^2차이의 임계값인 3.84보다 크면 양방 유의수준에서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χ^2검증결과가 유의하면 복잡한 모형을, 유의미하지 않으면 간명한 모형을 선택하므로(홍세희, 2000), 본 연구에서는 경쟁모형이 선택되었다. 즉, 모 양육행동이 우울과 불안을 매개하여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www.kci.go.kr

표 2.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적합도 지수		χ^2	*df*	*p*	TLI	CFI	RMSEA(95%신뢰구간)
부 양육행동	연구모형 (부분매개 모형)	579.59	128	.000	.94	.95	.06(.05, .06)
	경쟁모형 (완전매개 모형)	579.89	129	.000	.94	.95	.06(.05, .06)
모 양육행동	연구모형 (부분매개 모형)	582.34	128	.000	.94	.95	.06(.05, .06)
	경쟁모형 (완전매개 모형)	504.30	129	.000	.94	.95	.06(.05, .06)
부모 양육행동	연구모형 (부분매개 모형)	707.26	160	.000	.93	.94	.06(.05, .06)
	경쟁모형 (완전매개 모형)	710.64	162	.000	.93	.94	.06(.05, .06)

양육행동에서 두 모형의 χ^2차이값은 3.374이며 자유도의 차이값은 2이다. 자유도 차이인 2에 대한 χ^2차이의 임계값인 5.99보다 크면 양방 유의수준에서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χ^2검증결과가 유의하면 복잡한 모형을, 유의미하지 않으면 간명한 모형을 선택하므로(홍세희, 2000), 본 연구에서는 경쟁모형이 선택되었다. 즉, 부모 양육행동이 우울과 불안을 매개하여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 양육행동, 모 양육행동, 부모 양육행동의 세 측정모형 모두에서 경쟁모형이 선택되었다.

부 양육행동, 모 양육행동, 부모 양육행동에 대한 경쟁모형의 각각의 경로계수는 표 3과 같다. 표 3을 살펴보면, 부 양육행동은 우울(-.37, p<.001), 불안(-.30, p<.001)에 영향을 미치고, 우울은 인터넷 중독(.22, p<.05)에 영향을 주며, 불안은 인터넷 중독(.24, p<.01)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 양육행동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과 불안은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모 양육행동은 우울(-.24, p<.001), 불안(-.14, p<.001)에 영향을 미치고, 우울(.47, p<.01)과 불안(.56, p<.01)은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 양육행동이 인터넷 중독 성향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과 불안은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와 모의 양육행동이 인터넷 중독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크기는 모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24, p<.001)보다 부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25, p<.001)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모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14, p<.001)보다 부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23, p<.001)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와 모의 양육행동과 인터넷 중독 성향에서 우울과 불안의 완전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www.kci.go.kr

표 3. 부모 양육행동에 대한 경쟁모형의 모수추정치

변인 간 경로				B	β	SE	t
부 양육행동	부 양육행동	→	우울	-.13	-.37	.01	-10.69***
	부 양육행동	→	불안	.09	-.30	.01	-8.32**
	부 양육행동	→	인터넷 중독	-	-	-	-
	우울	→	인터넷 중독	.44	.22	.17	2.57*
	불안	→	인터넷 중독	.59	.24	.21	2.80**
모 양육행동	모 양육행동	→	우울	-.196	-.24	.02	-9.81***
	모 양육행동	→	불안	-.120	-.14	.02	-7.29***
	모 양육행동	→	인터넷 중독	-	-	-	-
	우울	→	인터넷 중독	.47	.47	.17	2.76**
	불안	→	인터넷 중독	.56	.56	.21	2.69**
부모 양육행동	부 양육행동	→	우울	-.08	-.25	.02	-5.46***
	모 양육행동	→	우울	-.12	-.24	.02	-5.15***
	부 양육행동	→	불안	-.06	-.23	.01	-4.92***
	모 양육행동	→	불안	-.06	-.14	.02	-3.08**
	부 양육행동	→	인터넷 중독	-	-	-	-
	모 양육행동	→	인터넷 중독	-	-	-	-
	우울	→	인터넷 중독	.49	.24	.17	2.85**
	불안	→	인터넷 중독	.57	.23	.21	2.71**

*p<.05, **p<.01, ***p<.001

표 4. 부모 양육행동에 대한 매개(간접)효과 검증

경 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95% 신뢰구간)	
부 양육행동	우울, 불안 ⇢		인터넷 중독	.	-.11*** (-.142 ~ -.084)	-.11*** (-.142 ~ -.084)
모 양육행동	우울, 불안 ⇢		인터넷 중독	.	-.17*** (-.215 ~ -.123)	-.17*** (-.215 ~ -.123)
부모 양육행동	부 양육행동	우울, 불안 ⇢	인터넷 중독	.	-.08** (-.110 ~ -.049)	-.08** (-.110 ~ -.049)
	모 양육행동	우울, 불안 ⇢	인터넷 중독	.	-.09** (-.145 ~ -.051)	-.09** (-.145 ~ -.051)

p<.01,*p<.001

www.kci.go.kr

4에 제시하였다. 부 양육행동이 우울과 불안을 매개로 하여 인터넷 중독 성향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은 -.11(p<.001)으로 나타났고, 모 양육행동이 우울과 불안을 매개로 하여 인터넷 중독 성향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은 -.17(p<.001)로 나타났다. 부모 양육행동이 인터넷 중독 성향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과 불안이 매개역할을 하는데, 부의 양육행동(-.08, p<.001) 보다 모의 양육행동(-.09, p<.001)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이 지각한 부와 모의 양육행동과 인터넷 중독 성향의 관계에서 우울과 불안이 매개하는지 검증하였다. 먼저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고, 구조방정식을 사용하여 매개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부 양육행동, 모 양육행동, 부모양육행동이 인터넷 중독 성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우울과 불안을 매개로 인터넷 중독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와 모의 양육행동이 인터넷 중독 성향을 유발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보다, 우울이나 불안을 통해 인터넷 중독 성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 양육행동의 부 통제와 인터넷 중독은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으나, 부 돌봄과 인터넷 중독은 일부 하위요인에서 낮은 수준의 부적상관을 보였다. 즉, 부 돌봄이 적을수록 일상생활장애, 가상적 대인관계 지향, 일탈행동과 같은 문제를 더 많이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의 양육행동 중 돌봄과 관심이 적을수록 청소년은 인터넷 중독에 걸릴 위험이 크고(전요섭 등, 2008), 부의 양육행동이 돌봄과 관심, 애정이 많을수록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는 연구결과와 그 맥을 같이한다(최혜진, 최연실, 안연주, 2011). 모 양육행동의 모 돌봄과 인터넷 중독 성향의 관계, 모 통제와 인터넷 중독 성향의 관계에서는 일부 하위요인에서 낮은 수준의 부적상관을 보였다. 즉, 모의 돌봄이 적을수록 일상생활장애, 금단, 가상적 대인관계 지향, 일탈행동, 내성과 같은 문제를 더 많이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모의 양육행동이 애정적, 긍정적일수록 청소년이 인터넷을 중독적으로 사용할 확률이 적다고 보고한 연구결과(김종원, 조옥귀, 2002; 이수진, 홍세희, 박중규, 2005)와 일치한다. 한편으로 모의 통제가 적을수록 일상생활장애, 일탈행동, 내성과 같은 문제를 더 많이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이 모의 통제적 양육행동을 부모가 자녀의 생활을 추적하고 감시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보다 자녀의 생활에 대해 적절한 권위를 가진 관심의 표현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Rohner & Pettengil, 1985), 자녀를 향한 모의 관심 토대 위에 적절한 감독은 자녀의 인터넷 중독 성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모의 적절한 통제와 관리 감독은 자녀의 인터넷을 중독적으로 사용할 확률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한 연구결과(김기숙, 김경희, 2009)와 그 맥을 같이한다.

둘째, 부 양육행동과 우울, 모 양육행동과 우울의 관계에서는 모든 하위요인에서 부적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의 낮은 돌봄이 자녀의 높은 우울 수준과 관련 있음을 보고한 연구결과(김보경, 민병배, 2006; 이현만,

www.kci.go.kr

한성희, 1996)와 부의 무관심한 양육행동은 청소년의 높은 수준의 우울 증상과 높은 상관을 보인다는 연구결과(김애경, 2002; Magaro & Weisz, 2006)를 지지한다. 또한, 모의 적은 관심, 낮은 돌봄이 청소년의 높은 우울 수준과 상관이 있음을 보고한 연구결과(Parker, 1979)와 모의 비난적, 침범적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높은 우울 성향과 상관이 있음을 보고한 연구결과(김보경, 민병배, 2006)와 맥을 같이한다. 이러한 결과는 부와 모의 저조한 돌봄이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전성일 등, 1996; Reti et al., 2002), 부모의 적은 돌봄이 자녀의 높은 수준의 우울을 예측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김보경, 민병배, 2006)와 부모의 낮은 감독, 방임적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높은 우울 수준과 관련이 있음을 보고한 연구결과(최지애 등, 2008)를 지지한다. 부 양육행동과 불안, 모 양육행동과 불안의 관계에서는 대부분의 하위요인에서 낮은 수준의 부적상관을 보였다. 즉, 부의 돌봄이 적을수록 걱정두려움, 분노충동, 소외불행, 신체생리적 증상과 같은 문제를 더 많이 보였고, 부의 통제가 적을수록 분노충동을 제외한 모든 하위요인의 문제를 더 많이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의 비온정적, 낮은 돌봄적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높은 불안 수준과 관련 있음을 보고한 연구결과(손석한 등, 2001; 한상우, 한선호, 1996)와 모의 낮은 돌봄적 양육행동은 청소년의 높은 불안 수준과 관련 있음을 보고한 연구결과(Power, 1985)와 일치한다. 즉, 부의 돌봄이 적을수록 걱정두려움, 분노충동, 소외불행, 신체생리적 증상과 같은 문제를 더 많이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부의 비온정적, 낮은 돌봄적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높은 불안 수준과 관련 있음을 보고한 연구결과(손석한 등, 2001; 한상우, 한선호, 1996)와 모의 낮은 돌봄적 양육행동은 청소년의 높은 불안 수준과 관련 있음을 보고한 연구결과(Power, 1985)와 일치한다. 한편으로 부의 통제가 적을수록 분노충동을 제외한 걱정두려움, 소외불행, 신체생리적 증상과 같은 문제를 더 많이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 또한 자녀의 일생생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의 수단인 부모의 적절한 통제와 관리감독은 자녀의 우울과 불안 예방에 중요하다는 연구결과(Rohner & Pettengil, 1985)와 그 맥을 같이한다.

셋째, 우울과 인터넷 중독 성향, 불안과 인터넷 중독 성향은 모두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높은 우울성향과 높은 인터넷 중독 수준과 관련이 있음을 보고한 연구결과(김종범, 한종철, 2001; Kraut et al., 1998)와 우울의 수준이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 성향이 증가함을 보고한 연구결과(Petrie & Gunn, 1998)를 지지한다. 또한, 불안과 인터넷 중독 간에 정적 상관이 있으며(김수정, 박원모, 박상복, 2007; 오원옥, 2007), 불안을 많이 느낄수록 청소년은 인터넷 중독 성향을 보일 확률이 높음을 보고한 연구결과(Tokunaga & Rains, 2010)를 지지한다.

넷째, 구조방정식을 사용한 매개모형 검증결과, 부 양육행동과 인터넷 중독 성향 간의 관계에서 부 양육행동이 인터넷 중독 성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우울과 불안을 매개로 하여 인터넷 중독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의 양육행동과 인터넷 중독 성향 간의 관계에서 부의 양육행동은 인터넷 중독 성향을 유발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보다, 우울이나 불안을 통해 인터넷 중독 성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의 양육행동이 모의 양육행동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점을 제시한다.

www.kci.go.kr

부로부터 충분한 관심과 지원을 받지 못한 청소년은 인정과 관계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 심리적으로 불안정하여 우울이나 불안의 수준이 높아지게 되며(이현만, 한성희, 1996; 전성일 등, 1996; Kwon, Chung, & Lee, 2001; Reti et al., 2002), 이러한 심리적 불안정감을 해소하고자 인터넷을 과도하게 사용할 수 있다(Griffiths, 1996; Gunn, 1998)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모 양육행동과 인터넷 중독 성향과의 관계에서 모의 양육행동이 인터넷 중독 성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우울과 불안을 매개로 인터넷 중독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모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우울과 불안에 영향을 미쳐 인터넷이 이러한 우울과 불안에 대한 보상적 활동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우울과 불안은 모의 잘못된 양육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이면서(김보경, 민병배, 2006; Barber, Olsen, & Shagle, 1994; Sato et al., 1998), 동시에 인터넷 중독 성향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김준수 등, 2004; 오원옥, 2007; 이석범 등, 2001). 이러한 결과는 부모로부터 충분한 관심과 지원을 받지 않은 청소년은 심리적으로 불안정하여 불안정한 상태를 회피하고자 인터넷에 몰입하게 되며(Davis, 2001), 부모를 통해 청소년의 기본 욕구인 사랑과 인정을 채우지 못하게 되면 인터넷을 통해서 욕구충족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인터넷 중독에 빠질 위험성이 있음을 제시한다(김기숙, 2009; 류진아, 2003; 심옥녀, 2008). 더욱이 청소년은 이러한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심리적 불안정감을 감소시키고 싶으나, 이를 건강하게 해소할 만한 능력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아 인터넷을 중독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더욱 크다(장재홍 등, 2002; Young & Rodgers, 1997).

특히 본 연구에서는 부의 양육행동보다 모의 양육행동이 우울과 불안을 매개로 인터넷 중독 성향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의 양육행동보다 모의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우울과 불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한 연구결과(김보경, 민병배, 2006; 전성일 등, 1996; Reti et al., 2002)와 그 맥을 같이하며 심리적 균형회복을 위한 건강한 기술이나 능력이 완전히 발달되지 못한 청소년기에는 이러한 우울이나 불안과 부정적 정서를 인터넷을 통해 보상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인터넷 중독 성향의 위험이 클 수 있다(장재홍 등, 2002; Griffiths, 1996; Gunn, 1998; Young & Rodgers, 1997).

따라서 연구결과를 고려하면 인터넷 중독 성향을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개입을 실시할 경우에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정서를 경험하고 있는지 먼저 탐색해 볼 필요가 있으며, 부모와의 관계에서 좌절된 욕구나 심적 상처를 이해하고 공감해 줄 필요가 있다. 또한 자신의 감정을 잘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이를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 의사소통능력을 훈련시킬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예방 및 중재에서 부의 양육행동 역시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성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고, 부와 자녀가 함께 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마련하여 부가 자녀에게 지지적, 애정적인 양육행동을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모와 자녀의 관계를 보다 친밀감을 높일 수 있는 모의 허용적, 개방적 양육행동을 하도록 훈련시킬 필요가 있고, 자녀의 인터넷 사용에 대한 모의 적절한 감독능

www.kci.go.kr

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부모가 자녀의 일상생활에 특별한 관심과 지지를 가지고 자녀를 잘 이해하고자 하는 적극적 태도를 기를 수 있게 하는 방법과 모와 자녀 간의 친밀감 형성을 촉진하는 방법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에게는 모와의 긍정적 관계 경험이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측면에 긍정적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시키는 내용의 훈련이 중요할 수 있으며, 모의 부족한 애정과 관심이 유발되는 상황에서 느끼는 우울, 불안과 같은 정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하여 당시에 경험한 정서를 잘 공감해줄 필요가 있다. 또한, 자신의 감정을 보다 잘 이해하고 자신의 정서 및 생각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표현능력을 훈련시키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P광역시의 중학생으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청소년 전체로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우울, 불안, 인터넷 중독 성향 여부에 대해 임상적 진단절차 없이 자기보고(self-report)식 자료에 근거하여 해석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임상적 장면에 적용하기에 미흡한 점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정확한 진단기준에 따라 정의되고, 진단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을 통해 후속 연구를 실시해볼 필요가 있다. 셋째, 우울이 인터넷 중독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장시간의 인터넷 사용이 우울을 야기시킨다는 연구결과(Kraut et al., 1998)와 인터넷 중독의 수준이 높을 때, 불안의 성향을 더욱 증가시킨다는 주장(Sheperd & Edelmann)도 있다. 즉, 가상세계에서의 빈번한 대인관계 접촉이 현실생활의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일으켜 청소년의 우울과 불안 수준을 높인다는 것이다(권선중 등 2005; 오원옥, 2007; 임성문, 조은실, 2005; Kraut et al., 1998).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높은 수준의 인터넷 중독 성향이 역으로 우울과 불안의 수준을 증가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우울과 인터넷 중독, 불안과 인터넷 중독의 관계를 추후 연구에서는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권구영, 이혜자 (2002).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과 정신건강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13(6), 59-86.

권선중, 김교헌, 이호석 (2005). 아동의 컴퓨터 게임 중독과 신체증상: 불안의 매개효과. 조사연구, 6(2), 39-50.

권희경, 권정혜 (2001). 인터넷 사용조절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검증을 위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3), 503-514.

김경신, 김진희 (200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관계변인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과학회지, 6(1), 15-25.

김교정, 서상현 (2006). 청소년 인터넷 중독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환경 변인의 경로모형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7(1), 149-179.

김교헌 (2002). 심리학적 관점에서 본 중독.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7(2), 159-179.

김기숙, 김경희 (2009). 초등학생의 인터넷게임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관련 변인. 아동간호학학회지, 15(1), 24-33.

김동식 (2004). 청소년 우울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자녀 유대에 관한 연구. 진각사회복지, 1, 91-100.

www.kci.go.kr

김보경, 민병배 (2006). 청소년 우울과 지각된 부모 양육 행동, 기질 및 성격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5(1), 221-236.

김수정, 박원모, 박상복 (2007). 초등학교 고학년의 인터넷 중독 관련 변인연구.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4(2), 193-211.

김애경 (2001). 아동과 초기 청소년의 사회적 행동: 부모와의 의사소통, 자아존중감 및 우울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2(3), 285-300.

김애경 (2002). 지각된 부모 양육태도 및 사회적 지원과 초기 청소년의 우울 및 외현적 문제와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16(3), 31-50.

김종원, 조옥귀 (2002). 중·고등학생의 자기통제력, 사회환경적 요인 및 인터넷, 게임 중독과의 관계. 교육이론과 실천, 12(2), 477-500.

김종범, 한종철 (2001). 인터넷 중독 하위집단의 특성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2), 207-219.

김준수, 조진무, 송윤미, 이정권 (2004). PC방 이용자들의 인터넷 중독과 우울, 불안 및 대인회피 성향과의 연관성. 가정의학회지, 25(6), 455-461.

김청택, 김동일, 박중규, 이수진 (2002). 인터넷 중독 예방상담 및 예방 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문경주, 오경자 (2002). 지각된 부모의 양육행동과 초기 청소년의 우울 및 불안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1), 29-43.

박지은, 최연희 (2011). 청소년의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및 충동성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재활간호학회지, 14(2), 145-152.

방희정, 조아미 (2003). 가족기능과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행동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6(1), 1-22.

소선숙, 명재신, 김청송 (2011).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의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6(3), 521-535.

손석한, 노경선, 허묘연, 정현옥, 이소희, 김세주 (2001). 청소년기 문제행동과 부모 양육행동에 관한 영향. 신경정신의학, 40(4), 605-615.

송지영 (1992). 한국판 부모-자녀 결합 형태 검사: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신경정신의학, 31(5), 979-992.

안순영, 김희진, 윤성혜, 천성문 (2009). 중학생이 지각한 역기능 가정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우울과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한국동서정신과학회지, 12(2), 33-46.

오원옥 (2004). 중학교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관련 교육 요구. 아동간호학회지, 10(1), 48-58.

오원옥 (2007). 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아동간호학회지, 3(1), 81-89.

이명수, 오은영, 조선미, 홍만제, 문재석 (2001).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증과 우울, 사회적 불안, 또래관계 문제와의 연관성 조사. 대한신경정신의학, 40(4), 616-626.

이석범, 이경규, 백기청, 김현우 (2001). 중고교 학생들의 인터넷 중독과 불안, 우울, 자기효능감의 연관성. 신경정신의학, 40(6), 1174-1183.

이소영, 권정혜 (2001). 인터넷 게임의 중독적 사용이 청소년의 문제해결능력 및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0(1), 67-71.

이수진 (2008). 청소년이 심리·사회적 변인이

www.kci.go.kr

인터넷 중독성향에 미치는 영향: 다변량 잠재성장 모형분석.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5(2), 173-192.

이수진, 홍세희, 박중규 (2005).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개인적, 가족적 변인간의 연구: 시간에 따른 변화와 상호 연관성. 교육심리연구, 19(4), 1179-1197.

이승대, 김선미 (2008). 고등학생의 인터넷 이용 및 중독실태에 따른 지도방안 모색. 사회과교육, 47(1), 77-101.

이현만, 한성희 (1996). 부모의 양육태도가 중학생의 우울성향에 미치는 영향. 소아·청소년정신의학, 7(2), 167-178.

이혜린, 도현심, 김민정, 박보경 (2009).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및 우울/불안의 매개적 역할. 한국아동학회, 30(2), 97-112.

임성문, 조은실 (2005). 대인불안성향의 인터넷 중독 청소년을 위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 개발. 사회과학연구, 22(1), 179-202.

장재홍 (2004). 부모의 자녀양육태도가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인터넷 사용욕구를 매개로. 상담학연구, 5(1), 113-128.

장재홍, 유정이, 권해수, 김형수, 최한나 (2002). 청소년의 인터넷 과다사용 예방 프로그램 개발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전성일, 류정환, 김영미, 정홍경, 조아라, 이정호, 최영민, 이기철 (2000). 청소년의 컴퓨터게임 이용실태, 부모양육방식, 개인의 정신병리. 소아·청소년정신의학, 11(1), 27-41.

전영자, 서문영 (2006). 중·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과 관련 변인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4(3), 13-25.

전요섭, 김수경, 박은정 (2008). 아버지 양육태도에 따른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차이. 청소년학연구, 15(2), 257-275.

전춘애, 박철옥, 이은경 (2008).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관련 변인 탐색 연구. 상담학연구, 9(2), 709-726.

조수철, 이영식 (1990). 한국형 소아 우울 척도의 개발. 신경정신의학, 29(4), 943-955.

청소년보호위원회 (2000). 인터넷 환경이 청소년 사회화에 미치는 영향. 서울: 청소년보호위원회.

최지애, 최영민, 이정호, 이동우 (2008). 우울증 환자의 부모양육행동, 대상관계 및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47(5), 450-470.

최진숙, 조수철 (1990). 소아 불안의 측정. 신경정신의학, 29(3), 691-702.

최혜진, 최연실, 안연주 (2011). 부모양육태도, 자기통제력 및 또래관계가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5(4), 113-133.

한국인터넷진흥원 (2010). 2010년 인터넷 이용실태 조사 보고서.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3).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검사(K-척도)와 예방교육프로그램.

한국정보화진흥원 (2010). 2010년 인터넷중독 실태 조사.

한상우, 한선호 (1996).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비행청소년과 학생청소년의 정신병리 및 성격 비교연구. 순천향의대논문집, 2(1), 105-118.

행정안전부 외 7개 부처 (2011). 2010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Barber, B. K., Olsen, J, E., & Shagle, S, C.

www.kci.go.kr

(1994). Associations between parental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control and youth internalized behaviors. *Child Development, 65*(4), 1120-1136.

Bögels, S. M., & Van Melick, M. (2004).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port, parent self-report, and partner report of perceived parental rearing behaviors and anxiety in children and paren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7*(8), 1583-1596.

Cao, F., & Su, L. (2007). Internet addiction among Chinese adolescents: Prevalence and psychological features. *Child: Care, Health and Development, 33*(3), 275-281.

Constanzo, P, R., & Woody, E. Z. (1985). Domain-specific parenting styles and their impact on the child's development of particular deviance: The example of obesity pronenes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3*(4), 425-430.

Davis, R, A. (2001). A cognitive-behavioral model of pathological internet use. *Computer in human behavior, 17*(2), 187-195.

Davison, G, C., & Neale, J, M. (1982). Abnormal psychology(3th ed). New York: Wiley.

Goldberg, I. (1995). Internet addiction. Electronic message posted to research discussion list. http: //www.rider.edu/suler/psycyber/supportgp.html.

Greenberg, L. & Paivio, S. (1997). *Working with Emotion in Psychotherapy*. New York: Guilford Press.

Griffiths, M. D. (1996). Internet addiction: An issue for clinical psychology. *Clinical Psychology Forum, 97*, 32-36.

Gunn, D. A. (1998). *Internet addiction*. Project Presented to the University.

Kovacs, M. (1981). Rating scales to assess depression in school aged children. *Acta Paedopsychiatrica, 46*(5), 305-315.

Kraut, R., Patterson, M., Lundmark, V., Kiesler, S., Mukopadhyay, T., & Scherlis, W. (1998). Internet paradox: A social technology that reduces social volvemen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3*, 1031-1071.

Kwon, J. H., Chung, C. S., & Lee, J. (2011). The effects of escape from self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on the pathological use of internet games.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47*(1), 113-121.

Magaro, M. M., & Weisz, J. R. (2006). Perceived control Mediates the relation between parental rejection and youth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4*(6), 863-872.

Manlove, E. E., & Vernon-Feagans, L. (2002). Caring for infant daughters and sons in dual-earner household: Maternal reports of father involvement in weekday time and tasks.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11*(4), 305-320.

McBride, B, A., Schoppe, S, J., & Rane, T. R. (2002). Child characteristics, parenting stress, and parental involvement: Fathers versus mothe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4*(4), 998-1011.

McGlinchey, J, B., & Dobson, K. S. (2003). Treatment Integrity Concerns in Cognitive Therapy for Depression. *Journal of Cognitive Psychotherapy, 17*(4), 299-318.

Murali, V., & George, S. (2007). Lost online an overview of internet addiction. Advances in

www.kci.go.kr

psychiatric treatment: the Royal College of Psychiatrists. *Journal of 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4*, 24-30.

Parker, G. (1979). Reported parental characteristics of agoraphobics and social phobics.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85*, 555-560.

Parker, G., Tupling, H., & Brown, L. B. (1979). A Parenting Bonding Instrument.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52*, 1-11.

Patten, G, C., Coffey, C., Posterino, M., Calin, J, B., & Wolfe, R. (2001). Paternal affectionless control in adolescent depressive disorder.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36*(10), 475-480.

Phares, V., & Renk, K. (1998). Perception of parents: A measure of adolescent's feelings about their par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0*(3), 646-659.

Power, T, G. (1985). Mother- and father-infant play: A developmental analysis. *Child Development, 56*, 1514-1524.

Reti, I. M., Samuels, J. F., Eaton, W. W., Bienvenu, O. J., Costa, P. T., & Nestadt, G. (2002). Influences of parenting on normal personality traits. *Psychiatry Research, 111*, 55-64.

Reynolds, C. R., & Richmond, B. O. (1978). What I think and feel?: A revised measure of children's manifest anxiety.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6*(2), 271-280.

Rohner, R. P., & Pettengil, S. M. (1985). Perceived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and parental control among Korean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56*(2), 524-528.

Sato, T., Sakado, K., Uehara, T., Narita, T., Hirano, S., Nishioka, K., & Kasahara, Y. (1998). Dysfunctional parenting as a risk factor to lifetime depression in a sample of employed Japanese adults: Evidence for the affectionless control hypothesis. *Psychological Medicine, 28*(3), 737-742.

Shepherd, R. M., & Edelmann, R. J. (2005). Reasons for Internet use and social anxie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9*(5), 949-958.

Stark, K, D., Humphrey, L, L., Crook, K., & Lewis, K. (1990). Perceived family environments of depressed and anxious children: Child's and maternal figure's perspective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8*(5), 527-547.

Tokunaga, R. S., & Rains, S. A. (2010). An evaluation of two characterizations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problematic Internet use, times spent using the Internet, and Psychosocial problems.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36*(4), 512-545.

Young, K. S. (1996). Internet can be as addicting as alcohol, drugs and gambling. An APA news release. http://www/apa.org/release.internet.html.

Young, K. S., & Rodgers R. C. (1998).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Internet Addiction. *CyberPsychology & Behavior, 1*(1), 25-28.

1차원고접수 : 2013. 04. 29.
심사통과접수 : 2013. 06. 07.
최종원고접수 : 2013. 06. 22.

www.kci.go.kr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2013, Vol. 18, No. 2, 257-277

Mediating Effects of Depression and Anxie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Father and Mother Bonding Behaviors and Internet Addiction Symptoms in Middle School Students

So Yeon Kim — Pusan National University

Dong Hun Lee — Sungkyunkwa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s of depression and anxie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father and mother bonding behaviors and internet addiction symptoms in middle school students. For this study, self-reports data were collected from 1092 students in P metro city for parenting behaviors, internet addiction, depression, and anxiety. Correlation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SEM) were employed to examine the hypotheses.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father and mother bonding behaviors were negatively correlated with most of subscales of internet addiction symptoms although no correlation was seen in father control, a subscale of father bonding behaviors. Second, father and mother bonding behaviors were negatively correlated with depression, and anxiety. Third, depression and anxiety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internet addiction. Third, the result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 showed that father and mother bonding behaviors did not directly affect to internet addiction symptoms, while depression and anxiety displayed mediating effects between father and mother bonding behaviors and internet addiction symptoms. Additionally, the effect size of mediating in mother bonding behaviors was larger than those of father bonding behaviors. Based on the results, findings and implications were discussed.

Key words : father and mother bonding behavior, depression, anxiety, internet addiction symptoms

www.kci.go.kr